

kg/10a와 362 kg/10a로 한지형(단양종)과 난지형(남도종)보다 월등히 높았다. 이러한 결과는 DL01이 한지형보다는 난지형에 가까운 중간형으로 단구형성 능력이 우수하여 품종적 특성이 발현된 결과로 생각되었다.

이상의 결과, 2월 25일 춘파재배 시 종구재료에 따른 생태형별 단구형성율과 단구수량을 보면, 주아과종은 단구형성율이 60.6%로 높았지만 단구의 크기가 작아 10 g 이상의 상품성 단구비율은 18.7%, 상품성 단구수량은 89 kg/10a으로 매우 낮았다. 단구과종과 분구과종은 단구형성율이 39.0~49.3%로 주아과종보다 낮았으나, 상품성 단구비율은 24.0~32.3%였고, 상품성 단구수량은 138~202 kg/10a으로 주아과종보다 높았다. 단구생산을 위한 춘파재배의 종구 선택은 단구과종과 분구과종이 주아과종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

생태형별로 한지형(단양종)은 단구형성율이 7.6%로 낮았고 상품성 단구비율이 0%, 상품성 단구수량도 0 kg/10a으로 낮아 한지형(단양종)의 춘파재배는 단구 생산성이 매우 낮았다. 중간형(DL01)은 단구형성율이 90.7%로 매우 높았고, 상품성 단구비율이 60.0%, 상품성 단구수량이 362 kg/10a으로 가장 많아 춘파재배에 유리해 보였다. 난지형의 남도종은 단구형성율이 50.6%, 상품성 단구비율이 15.0%, 상품성 단구수량은 67 kg/10a으로 단구형성과 단구수량이 높지 않았다.